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흐림’

광주상공회의소, 2~3분기 연속 기준치(100) 밑돌아 ‘부정적’

무더위·하계휴가·명절 등 호재 불구 침체국면 지속 전망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이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7~9월)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지역 6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87)보다 4포인트 하락한 '83'으로 집계되면서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고 16일 밝혔다.

RBSI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무더위와 하계휴가, 추석 명절 등 계절적 호재가 많음에도 3분기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있다.

최저임금 상승, 경쟁심화 등도 기업 활동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별 3분기 전망을 살펴보면 백화점(100)은 정체, 대형마트(64)와 편의점(94), 슈퍼마켓(80)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화점(87→100)은 판촉 강화와 점포 리뉴얼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역 경기침체로 매출이 정체될 것

으로 예상했다.

대형마트(83→64)는 상품구색 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온라인 채널 성장과 의무휴일 규제, 소비위축에 따른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매출액) 감소 우려로 경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슈퍼마켓(109→80)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소비여력 약화, 편의점(95→94)은 경쟁점포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3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유통업체들은 3분기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애로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33.3%)'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서 '경쟁심화(32.4%)', '제품가격 상승(12.4%)',

정부규제(5.7%)' 등을 꼽았다.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억제(52.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과도한 규제 완화(19.4%)'가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의견은 편의점(71.9%)과 슈퍼마켓(60.0%) 업종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는 대형마트(90.9%)와 백화점(75.0%)에서 높게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지역 시장규모의 한계로 소매유통업체들이 바라보는 향후 전망이 어둡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소비심리 개선 노력과 함께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시장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반기 '1t 트럭' 잘 팔렸다...이유는?

올해 상반기에도 1t 트럭이 잘 팔렸다. 16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1t 트럭 '포터'는 올 상반기 4만8612대가 판매되며 상반기 판매 3위를 차지했다. 기아자동차의 '봉고' 역시 3만322대가 판매되며 8위를 나타냈다. 이들 두 차량의 판매대수는 7

월 협회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불황일 때는 1t 트럭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 1t 트럭 보유자들의 교체수요에 더해 신규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반기 판매 1위는 현대차 준대형 세단 '그랜저' (5만 8468대)가 차지했다. 2위는 현대차 '싼타페' (5만 1753대), 4위는 기아차 '카니발' (3만7362대), 5위는 기아차 '쏘렌토' (3만5838대), 6위는 현대차 '아반떼' (3만5803대), 7위는 현대차 '쏘나타' (3만2770대)였다.

매상, 푸드트럭, 운송자영업 등을 할 수 있다. 택배 수요의 증가 역시 1t 트럭 판매 증가의 원인이 다.

조선업 등 각 업종에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퇴직자들이 대거 양산된 지난해에도 1t트럭이 15만4774대 판매되며, 전년(13만3832대)에 비해 15.0% 증가했다.

포터 4만9512대 3위·봉고 3만332대 8위 '불황의 차'...영세자영업자 늘수록 판매↑

협회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불황일 때는 1t 트럭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 1t 트럭 보유자들의 교체수요에 더해 신규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반기 판매 1위는 현대차 준대형 세단 '그랜저' (5만 8468대)가 차지했다. 2위는 현대차 '싼타페' (5만 1753대), 4위는 기아차 '카니발' (3만7362대), 5위는 기아차 '쏘렌토' (3만5838대), 6위는 현대차 '아반떼' (3만5803대), 7위는 현대차 '쏘나타' (3만2770대)였다.

경기 후퇴로 실직자가 늘어날수록 영세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1t 트럭을 구매하면 가게를 열거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도 이동식 과일판

전국 폭염특보...냉방용품 '불티'

가전업계 '3년 연속 에어컨 판매량 경신' 기대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가전 수요도 높고 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 장마 기간이 짧아지면서 폭염은 앞으로 한달 가량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업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 속에 올해 에어컨 시장 규모를 250만~270만대로 지난해의 높은 판매실적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에어컨 생산 풀가동 시점을 예년보다 한달여 이상 앞당겼지만 일부 인기품목은 대기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1월부터 에어컨 신제품을 내놓고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소비전력을 낮춘 절전 기능과 음성인식 등 진화된 기술을 선보이며 판매량도 순항 중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인공지능(AI) 비서 '빅스비'를 적용한 2018년형

무풍에어컨을 내놨다. 초절전 하이브리드 인버터를 적용해 10년 전 제품 대비 효율을 2배 개선했고, 전기요금은 최대 65% 절감시켰다. 미세홀 13만500개로 구성된 메탈 쿨링 팬넬 구조 기술이 탑재됐고 음성 인지 기능이 강화돼 복합적인 명령어도 알아듣고, 일주일만 지나면 사용패턴을 학습해 스스로 가동된다.

LG전지도 AI 플랫폼 '딥싱큐'를 탑재한 2018년형 휘센 신제품을 출시했다. 주변환경과 고객에 최적화된 방식의 '인공지능 스마트케어'로 냉방 세기를 조절한다. 이를 통해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절전 기능을 판단,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또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한번에 보다 많은 냉매를 압축할 수 있어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덥다', '춥다' 등 감정언어뿐 아니라 사투리까지 인지하는 점도 재미난 부분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으로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만큼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업계에서 사실상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3년 연속 에어컨 판매량 기록경신 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에어컨 판매 대수는 지난 2016년 220만대, 2017년 약 250만대로 역대 판매량 신기록을 이어갔다.

“수박 사러 이젠 편의점으로”

농협, CU·GS25·세븐일레븐에 농산물 공급

농협경제지주는 편의점 빅3(CU, GS25, 세븐일레븐)에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을 공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3월부터 국내 대표 편의점인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협력해 국산 농산물을 편의점에 공급해왔다.

17일 초복 이후에는 GS25에서 햇사레 복숭아도 판매한다.

농협경제지주는 편의점 업계와 함께 편의점 전용 상품 개발과 사전예약 주문 방식의 택배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군고무마 원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약 3만8000개 중 CU와 GS25가 각 1만 2000여개, 세븐일레븐이 9000여개다. 3개 업체가 전체 편의점의 약 86%를 점유하고 있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는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편의점에서 과일·채소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전국 산지 조직과 안정 농산물 물류센터 등을 통해 편의점용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